

1차 자습	2차 자습	3차 자습
/	/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구겨진 하늘은 묵은 애기책을 편 듯
돌담 울이 고성같이 둘러싼 산기슭
박쥐 나래 밑에 황혼이 묻혀 오면
초가 집집마다 호롱불이 켜지고
고향을 그린 **묵화(墨畵)** 한 폭 종이 쳐.

[A]

띄엄 띄엄 보이는 그림 조각은
앞밭에 보리밭에 말매나물 캐러 간
가시내는 가시내와 종달새 소리에 반해

[B]

빈 바구니 차고 오긴 너무도 부끄러워
술레잔 두 뺨 위에 모매꽃이 피었고.

그넷줄에 비가 오면 풍년이 든다더니
앞내강에 씨레나무 밀려 나리면
젊은이는 젊은이와 뗏목을 타고
돈 벌러 항구로 흘러간 몇 달에
서릿발 잎 져도 못 오면 바람이 분다.

[C]

피로 가꾼 이삭이 참새로 날아가고
곰처럼 어린 늑이 북극을 꿈꾸는데
늑은이는 늑은이와 싸우는 입김도

[D]

벽에 서려 성에 끼는 한겨울 밤은
동리(洞里)의 밀고자인 강물조차 얼붙는다.

[E]

- 이육사, 「초가」-

(나)

오늘, **북창**을 열어,
장거릴 등지고 산을 향하여 앉은 뜻은
사람은 맨날 변해 쌓지만
태고로부터 푸르러 온 산이 아니냐.
고요하고 너그러워 수(壽)하는 데다가
보옥을 갖고도 자랑 않는 겸허한 산.
마음이 본시 산을 사랑해

평생 산을 보고 산을 배우네.
그 품 안에서 자라나 거기에 가 또 묻히리니
내 이승의 낮과 저승의 밤에
아아라히 뻗쳐 있어 다리 놓는 산.
네 품이 내 고향인 그리운 산아
미역취 한 이파리 상긋한 산 내음새
산에서도 오히려 산을 그리며
꿈같은 산 정기(精氣)를 그리며 산다.

- 김관식, 「거산호 2」-

(다)

온갖 꽃들이 요란스럽게 일제히 터트려져 광채가 찬란하다. 이때에 바람이 살짝 불어오면 향기가 코를 스친다. 때마침 풀 베는 자가 낮을 가지고 와서 손 가는 대로 베어 내는데, 아쉬워 돌아보거나 거리끼는 마음도 없다. 나는 이에 한숨을 쉬며 탄식하여 말하였다.

"땅이 낡고 하늘이 기르는바, 만물이 무성히 자라며 모두가 광대한 은택을 입는구나. 이에 따스한 바람이 불어 갖가지 형상을 아로새기고 단비를 내려 온 돌레를 물들이니, 천기(天機)를 함께 타고나 형체를 부여받음에 각기 그 자질에 따라 고운 자태를 드러낸다. 모란의 진귀하고 귀중함을 해당화의 곱고 아름다움에 견주어 보면, 비록 크고 작은 차이는 있겠으나, 어찌 공교함과 졸렬함에 다른 헤아림이 있었겠는가?"

(중략)

그런데도 귀함이 저와 같고 천함이 이와 같아, 어떤 것은 부호가의 깊은 장막 안에서 눈앞의 봄바람을 지키고, 어떤 것은 짧은 낮을 든 어리석은 종의 손아귀에서 가을 서리처럼 변한다. 이 어찌 된 일인가? 뜨락은 사람 가까이에 있고 교외의 땅은 멀리 막혀 있어 가까운 것은 친하기 쉽고 멀리 있는 것은 저어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아니면 요황과 위자*는 성씨가 존엄한데 범상한 화초는 이름이 없으며, 성씨가 존엄한 것은 곱게 빛나는데 이름 없는 것들은 먼 데서 이주해 온 백성 같은 존재이기 때문인가? 그도 아니면 뿌리가 깊은 것은 종족이 번성한테 뻗뻗이 늘어선 것들은 가늘고 작으며, 높고 큰 것은 높은 자리에 있고 가늘고 작은 것들은 들판에 있기 때문인가?

1차 자습	2차 자습	3차 자습
/	/	/

아! 낳는 것은 하늘에 달려 있으나 영화롭게 하는 것은 인간에 달려 있다. 하늘은 사사로움이 없기에 그 조화(造化)가 균일하지만, 인간은 널리 베풀지 못하므로 소원함도 있고 친함도 있는 것이다. 하늘이 이미 낳아 주었는데 또 어찌 사람이 영화롭게 하고 영화롭지 못하게 한다고 원망하겠는가? 나에게서는 비록 감정이 있지만 풀에는 감정이 없으니, 그것이 소의 목구멍을 채우는 것과 나비로 하여금 다투어 찾도록 하는 것을 어찌 달리 보겠는가?”

- 이옥, 「담초(談艸)」-

* 요황과 위자 : 모란의 진귀한 품종을 일컫는 말.

22. 묵화와 북창을 중심으로 (가)와 (나)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에서는 '묵화'와 '박쥐 나래'의 이미지를 연결하여 고향의 어두운 **분위기**를, (나)에서는 '북창'에서 바라본 산의 '품'에 주목하여 산이 주는 아늑한 **분위기**를 드러낸다.
- ④ (가)에서 '묵화'를 '그림 조각'이라고 한 것은 고향의 분절된 이미지를, (나)에서 '북창'을 '열어' 산을 보고 있다는 것은 선망하는 세계와 분리된 **이미지**를 나타낸다.
- ⑤ (가)에서는 '묵화'에 그려진 '모매꽃'에 부끄러움의 **정서**를, (나)에서는 '북창'을 통해 본 '보옥'에 안타까움의 **정서**를 담아낸다.

WORD 1 22번에서 공부할 단어들

- 분위기
- 이미지
- 정서

REMARK 1 감정=정서, 그리고 동기

감정과 정서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단어는 바로 'emotion'입니다.

emotion이란 말 자체는 일종의 운동(motion)으로, 밖으로(e-, out) 향하는 운동을 의미합니다. emotion이란 말이 처음 일상에서 사용되기 시작했을 때는 소란 혹은 소요를 의미했고, 대기의 emotion은 천둥을 의미했습니다. 사람들이 느끼는 요동치는 경험도 emotion이라고 했습니다. emotion은 1650년대에는 'strong feeling'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했고, 1800년대에는 'any feeling'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감정(emotion)이라는 말은 역사적으로 그 의미가 변해 왔듯이, 앞으로도 시대에 따라 그 의미가 변할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대부분 기쁨이나 슬픔 등이 감정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배고프다고 느끼는 것도 감정일까요?

배고픔은 감정과는 다른 동기(motivation) 혹은 추동(drive)입니다. 동기란 어떤 것을 하려는 충동을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 동기와 감정이 딱 나누어지는 것은 아니고, 서로 상당히 중첩되어 있습니다. 어원적으로도 감정과 동기 모두 '움직이다'를 의미하는 라틴어 movere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을 느낄 때마다 동기를 갖습니다. 공포는 도피하려는 동기를 동반하고, 분노는 공격하려는 동기를 동반합니다. 한편 배고픔은 먹으려는 충동을 동반합니다. 그러나 동기(추동)는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지속되는 데 반해 감정은 보통 시간이 지나면서 급속히 약해집니다. 그리고 동기는 신체의 내부적 요구를 반영합니다. 즉 음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배고픈 것이고, 물이 필요하니까 갈증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정은 대부분 자기 신체 내부가 아닌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입니다.

정리하면 동기와 감정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동기는 그것이 만족될 때까지 계속 유지되는 데 반해 감정은 경과가 어떻든 시간이 지나면 약해집니다. 둘째, 동기는 신체적 욕구를 반영하지만 감정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한 반응으로 발생합니다. 도로에서 차를 몰고 가는데 누군가가 갑자기 앞지르기를 한다면 대부분 화가 납니다. 이런 분노를 만드는 것은 외부 자극이죠. 또 길을 걸어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 화가 나서 아무 죄 없는 돌을 발로 걷어차기도 하는데, 이것도 외부 자극 때문입니다. 이처럼 감정과 동기는 다른 특성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서로 엉켜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동기의 대부분은 감정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1차 자습	2차 자습	3차 자습
/	/	/

앞서 말했듯이 감정은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인데, 뜨거운 물건에 손이 닿으면 바로 손을 떼는 반응과 같은 반사적인 반응과는 달리 뇌에서 인지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반응입니다. 누군가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할 때, 그 사람과 친한 관계였는지 아니면 전혀 모르는 사람인지에 따라 우리의 감정은 달라집니다. 또 웃는 사람을 보면서 느끼는 즐거움의 강도는 그 사람이 웃는 이유가 무엇이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즉 나에게 감정을 일으킨 사건 자체뿐만 아니라 그 사건의 의미에 따라 감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때의 인지 과정은 항상 상황을 언어로 표현할 만큼의 의식적인 과정은 아닙니다. 내가 지금 경험한 상황을 뇌가 의식적으로 이해하기 전에, 즉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기 전에 우리의 뇌는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좋은지 싫은지를 느낍니다.

우리는 감정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낼 수는 없습니다. 감정이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 자신이 일으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감정을 인위적으로 만들려는 훈련을 하는 연극배우도 많습니다. 또 배우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감정을 조절하려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기분 전환을 위해 영화를 보러 가고, 맛있는 음식을 먹기도 하고, 술도 마십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자극 기능을 하지만, 감정을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화나는 일을 당하면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노력해도 화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물론 감정이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해명을 통해 상황을 이해하면, 감정은 변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감정이 동기와 다른 점입니다. 즉 배고픔은 음식을 먹어야 충족되는 것이지, 아무리 먹지 못하는 상황을 설명 듣고 이해한다고 해도 배고픔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부 자극에 대한 단기적, 인지적 반응
(인간의 모든 감정, 2011. 4. 10., 최현석)

5번 선지, ‘부끄러움의 정서를,’이라는 표현은 ‘부끄러움의 감정’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REMARK 2 이미지와 심상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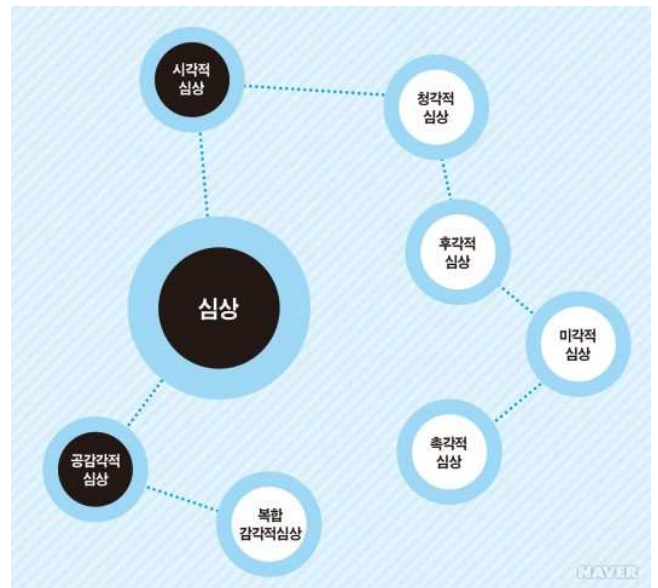
심상의 사전적 의미는

시에에 의해 마음속에 떠오르는 구체적이고 선명한 영상이나 감각적인 인상.

심상은 '이미지'와 같은 말이야. 한자어 그대로 마음(心)에 그려지는 상(象)을 말하지. 실제로 어떤 대상을 직접 보는 것도 아닌데, 구체적으로 표현된 묘사나 비유를 보면 대상을 직접 보고 겪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돼. 그 표현으로 인해 우리 마음속에 구체적인 인상이 떠오르는 것이지.

심상은 감각적인 언어로 표현된단다. 감각이란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맛보고, 냄새를 맡음으로써 알게 되는 모든 자극을 말해. 다 알다시피 감각에는 다섯 가지가 있어.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이야.

심상을 표현할 때도 이 다섯 가지 감각을 모두 사용한다. 그래서 어떤 감각을 자극하는지에 따라 시각적 심상, 청각적 심상, 촉각적 심상, 미각적 심상, 후각적 심상으로 나눌 수 있어. 그리고 두 가지 심상이 동시에 쓰인 공감각적 심상도 있단다.



심상(이미지)
(중학생이 즐겨찾는 국어 개념 교과서, 2011. 8. 10., 이서영, 강승임)

1번 선지, “박쥐 나래”의 이미지’는 ‘시에 ‘박쥐 날개’에서 느낄 수 있는 모든 감각’과 동일한 표현이다.

1차 자습	2차 자습	3차 자습
/	/	/

REMARK 3 분위기와 감정, 그리고 느낌

분위기

[雰圍氣 , Atmosphere]

작가가 문학 작품에서 분위기를 대상과 설정에 대한 설명을 통해 독자에게 전달하는 감정이나 느낌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분위기는 작가가 독자에게 전달하는 감정, 혹은 느낌이다. 다시 말해서 분위기는 감정으로도 볼 수 있고, 느낌으로도 볼 수 있다.

감정과 느낌에 대한 구분을 하기 위해서, 감정과 느낌에 대해서 백과들을 찾아보았고 얻은 결론은

감정 = 느낌

이 때 감정은 feeling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감정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emotion으로의 감정’과
‘feeling으로의 감정’

이런 구분은 T.S. 엘리엇이 시작했으며, 경험적 자아와 시적 자아를 구분한 엘리엇은 실제의 정서(emotion)와 작품 속에 표현된 감정인 정서(feeling)를 구분한다. 시에서 감정의 직접적 진술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엘리엇은 대신 시인의 감정을 환기시키는 이미지, 단어(객관적 상관물) 등의 사용을 권하였다.

감정 [感情, Feeling, Emotion]
(문학비평용어사전, 2006. 1. 30., 한국문학평론가협회)

지금까지 정리된 내용을 기반으로 말하자면,

- 분위기는 작가가 작품 혹은 문학표현을 통해 전달하려는 ‘느낌’이자 ‘감정’입니다.
- 이미지는 작가가 작품 혹은 문학 표현을 통해 전달하려는 ‘감각’입니다.

따라서 1번 선지. ‘어두운 분위기’, 아늑한 분위기’는 어두운 느낌, 아늑한 느낌으로 바꿀 수 있다.

다른 선지들을 살펴보자.

[2023학년도 6월 모평]

25. (가)와 (나)의 시어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의 ‘녹음’은 평온한 분위기의, (나)의 ‘동방’은 암울한 분위기의 장소이다.

31. <보기>를 참고하여 [A]~[E]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② [B] : 부정하게 모은 많은 물건들을 하나씩 나열하여 습격 당시 현장의 들뜬 분위기를 환기함으로써 ‘군중’의 놀람과 분노를 독자에게 전하려 하고 있군

32.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가)와 (나)는 모두 동일한 시구의 반복과 변주를 통해 시적 분위기를 고조하고 있다.

[2023학년도 9월 모평]

22.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예스러운 종결 표현으로 고풍스러운 느낌을 자아내고 있다.

25.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② 2연의 ‘물소리에 흰 돌 되어 씻기우며’에서, 자연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3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은 대구를 통해 자연 경물의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한적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1차 자습	2차 자습	3차 자습
/	/	/

REMARK 4 심상의 종류

시각적 심상

눈을 통해 빛깔, 모양, 움직임, 크기 등을 보는 듯한 느낌.

시각적 심상은 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심상이야. 심상이 이미지와 같은 말이라고 했으니 시각적 이미지라고도 해. 실제 눈으로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심상이지. 색깔을 표현한 시어, 모양이나 크기를 나타낸 시어, 움직임을 나타내는 시어 등이 시각적 심상을 드러내. 다음 구절들을 살펴 보자.

좁은 들길에 들장미 열매 붉어
신석정,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

어두운 방 안엔 바알간 숯불이 피고
김종길, 〈성탄제〉

잠 이루지 못하는 밤 고향집 마늘밭에 눈은 쌓이리.
잠 이루지 못하는 밤 고향집 추녀밑 달빛은 쌓이리.
박용래, 〈겨울밤〉

길은 한줄기 구겨진 넥타이처럼 풀어져
일광의 폭포 속으로 사라지고
조그만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새로 두 시의 급행열차가 들을 달린다.
김광균, 〈추일 서정〉

위에서 첫 번째 시부터 세 번째까지는 모두 대상을 직접 묘사하여 심상을 표현했는데, 마지막 시는 다른 사물에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어. 길은 '구겨진 넥타이', 햇빛은 '일광의 폭포', 열차의 연기는 '담배 연기'에 빗대고 있지. 이처럼 심상을 제시하는 방법에는 있는 그대로 서술하거나 묘사하여 표현하는 방법과 다른 사물을 끌어들이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이 있단다.

청각적 심상

귀를 통해 소리를 듣는 듯한 느낌.

청각적 심상은 실제 귀로 듣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심상이야. 소리, 음성, 음향 등 소리와 관련한 구체적인 표현이 들어 있어야 청각적 심상이라고 할 수 있어. 다음 구절들을 통해 몇 가지 예를 알아보자.

절동
절동
아우래비 절동
김소월, 〈절동새〉

머리맡에 찬물을 쇄아 퍼붓고는
김동환, 〈북청 물장수〉

계집아이들의 높고 쾌활한 웃음소리에
양길자, 〈가을 소녀들〉

저 바람에 새가 슬피 운다.
김억, 〈봄은 간다〉

두 점을 치는 소리
방범대원의 호각 소리 메밀묵 사려 소리에
눈을 뜨면 멀리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
신경림, 〈가난한 사랑 노래〉

미각적 심상

혀를 통해 맛을 보는 듯한 느낌.

미각적 심상은 실제 혀로 맛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심상이야. 짠맛, 신맛, 단맛, 쓴맛 등 맛과 관련한 구체적인 표현이 들어 있어야 미각적 심상이라고 할 수 있어. 다음 구절들을 통해 몇 가지 예를 알아보자.

물새알은 간간하고 짭조름한 미역 냄새
박목월, 〈물새알 산새알〉

1차 자습	2차 자습	3차 자습
/	/	/

집집 끼니마다 봄을 씹고 사는 마을

김상옥, 〈사향〉

메마른 입술이 쓰디쓰다

정지용, 〈고향〉

후각적 심상

코를 통해 냄새를 맡는 듯한 느낌.

후각적 심상은 실제 코로 냄새를 맡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심상이야. 자연물에서 나는 냄새, 음식에서 나는 냄새 등 냄새와 향과 관련한 구체적인 표현이 들어 있어야 후각적 심상이라고 할 수 있어. 다음 구절들을 통해 몇 가지 예를 알아보자.

꽃 피는 사월이면 진달래 향기

밀 익는 오월이면 보리 내음새

김동환, 〈산 넘어 남촌에는〉

어마씨 그리운 솜씨에 향그러운 꽃지짐

김상옥, 〈사향〉

온 집안에 퀴퀴한 돼지 비린내

신경림, 〈장마〉

쌍바라지 열어제치면

씩달라무 씩는 냄새 유달리 향그러웠다

이용악, 〈두메산골〉

술 익는 마을마다

박목월, 〈나그네〉

위의 구절들 중에서 〈나그네〉의 '술 익는'이라는 표현이 왜 후각적 심상 인지 궁금하지? 그건 술이 익는다는 건 발효가 된다는 뜻이고, 그러면서 냄새가 나기 때문이야. 그러니 만약 과일이 익는다고 하면 시각적 심상이겠지.

촉각적 심상

피부에 닿는 듯한 느낌.

촉각적 심상은 실제 피부에 닿는 듯한 느낌을 주는 심상이야. 부드러움, 거침, 차가움, 따뜻함 등 감촉 및 온도와 관련한 구체적인 표현이 들어 있어야 촉각적 심상이라고 할 수 있어.

다음 구절들을 통해 몇 가지 예를 알아보자.

발목이 시리도록 밟아도 보고

이상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승

젊은 아버지의 서늘런 옷자락에

열로 상기한 불을 말없이 부비는 것이었다.

김종길, 〈성탄제〉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내 불에 와 닿던 네 입술의 뜨거움

신경림, 〈가난한 사랑 노래〉

공감각적 심상

하나의 감각을 다른 감각으로 옮겨 표현한 심상.

공감각(共感覺)이란 어떤 하나의 감각이 다른 영역의 감각을 일으키는 것을 말해, 여기서 하나의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옮겨가는 것을 '전이'라고 해. 예를 들어 소리를 들으면 빛깔이 느껴지거나, 어떤 색깔에서 촉감이 느껴지거나 하는 거야. 시인은 이런 이중적인 느낌을 공감각적 심상을 통해 표현한다.

울음소리를 들었는데 푸른 빛깔이 느껴지면 '푸른 울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 '푸른 울음'은 청각을 시각으로 전이시킨 표현이지. '청각의 시각화'라고도 한다. 반대로 '해질녘 울음이 타는 가을 강을 보겠네'라는 구절은 노을에 물든 가을 강을 보면서 울음소리를 들은 것 같은 느낌을 표현한 거야. '시각의 청각화'라고 할 수 있는데, 시각을 청각으로 전이시킨 거야.

다음에서 다른 예들을 더 알아보자.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 청각(종소리)의 시각화(분수처럼, 푸른)
김광균, <외인촌>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 청각(울음)의 시각화(금빛)
정지용, <향수>

푸른 휘파람 소리가 나거든요
→ 청각(휘파람 소리)의 시각화(푸른)
박성룡, <풀잎>

새벽까지 시린 귀뚜라미 울음소리
→ 청각(울음소리)의 촉각화(시린)
고은, <열매 몇 개>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달이 시리다
→ 시각(새파란 초생달)의 촉각화(시리다)
김기림, <바다와 나비>

엄마 안 오시네, 배추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 청각(발소리 타박타박)의 시각화(배추잎)
기형도, <엄마 걱정>

피라미 은빛 비린내
→ 후각(비린내)의 시각화(은빛)
유재영, <독방길>

복합 감각적 심상

서로 다른 감각이 나열되어 있는 경우를 말함.

공감각적 심상과 구분해야 할 심상이 있어. 보통 한 구절에 두 가지 이상의 심상이 보이면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판단하는데, 꼭 그런 건 아니야. 그냥 두 가지 이상의 심상이 아무 관련 없이 나열된 경우도 있어. 이를 복합 감각적 심상이라고 해.

'푸른 울음'은 울음을 푸르다고 했으니까 공감각적 심상인데, '푸른 나뭇잎 종종 새소리'라고 하면 단순히 나뭇잎의 시각적 이미지와 새소리의 청각적 이미지를 나열한 것에 불과해. 나뭇잎과 새소리는 독립된 하나의 감각으로 표현된 거란다.

다음의 예를 통해 확실히 알아 두자.

술 익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 놀
→ 후각적 심상(술 익는)과 시각적 심상(저녁 놀)이 차례로 나열
박목월, <나그네>

접동새 소리 별 그림자
→ 청각적 심상(접동새 소리)과 시각적 심상(별 그림자)이 차례로 나열
도종환, <어떤 마을>

심상(이미지)
(중학생이 즐겨찾는 국어 개념 교과서, 2011. 8. 10.,
이서영, 강승임)